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설교 8회

8.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2010년 5월 15일(안식일 아침)

[막2:17]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序;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오늘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들여보고자 합니다.

나는 군대 생활을 할 때, 나의 신앙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겪으며 지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들이 어지간히 답답하고 딱했던 모양인지, 동정 어린 음성으로 좋은 의미의 권고를 했습니다.

“김 병장, 뭐 그리 어렵게 살려고 그래요. 사정 따라 살지.”

“어렵다니, 나는 어려운 것 못 느끼고 지내는데. 뭣이 그리 불편해 보여요?”

“무얼 믿고 산다는 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 보겠다는 것 아니요?”

“옳은 말이요. 그런데 뭣이 잘못 되었소?”

“이 군대 생활이 김 병장의 믿음 생활로 인해 더 어렵고 힘 드는 것 아니요. 괜히 그렇게 능청 떨지 마시오.”

이때, 잠자코 있던 한 동료가 불쑥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예수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어야 살 수 있다는 사람들 말이야, 그 다 약하다는 증거야. 믿어야 살겠다는 것은, 그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는 약자들의 모습 외에 아무 것도 아니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 사람은 믿고 살아야 합니까? 한번쯤은 생각해 볼만한 문제가 아닙니까?

나는 그때 그 동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박 병장 말이 옳아요. 그런데, 박 병장은 강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믿지 않아도 살아 갈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박 병장이 약하지 않다는 증명을 한번 해봐요.”

“...”

“나는 아무 것도 믿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건 증거가 아니고 주장일 따름이지요. 그런 주장은 증거가 되기 전에는 설득력이 없어요. 내가 다시 물어 봅시다. 그래 박 병장은 죽지 않을 자신이 있소?”

“안 죽고 살 사람 누가 있는데.”

“옳은 말이요.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은 약하다는 증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는 한 가지뿐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약한데 약한 것을 알고 시인하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약한데 약하다고 생각도 안하고 그것을 시인하지도 안 하는 차이지요. 박 병장이 나, 나나 다 죽는데 본질적 의미에서 박 병장이 나보다 강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세리 출신인 마태의 집에서 마태의 친구 세리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명료하게 밝히신 말씀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죄인인가 하는 항의를 할 수 있지요.

1.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시한부 인생>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죽음을 이길 용사는 없습니다. 인생의 날은 짧고 그 날들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빈정대던 친구도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애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사실에는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죽음은 죄의 삯입니다.

[롬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 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다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거부하고 싶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히 2:15)들입니다. 흥기를 눈앞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위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구하는 것은 뭐이든지 들어줄 터이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 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연약성 곧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음을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39:4~6]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시 90:10,12]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얻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언제 죽어도 한번 죽을 그 목숨을 위하여 그렇게 천하게 애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죽을병이 든 환자들입니다. 병든 자들은 의원이 필요하지요. 때로는 그냥 지내면 나

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병은 죽을병이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될 수 없는 병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은 의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병이 든 사람들처럼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죽을병을 치료하여 살려주시는 의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죽을병이 든 사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사람의 본성 깊은 곳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전 3:11)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죽게 된 것은 창조된 인격적 존재에게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살고 계속 사는 것이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죽을 길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스스로 선택한 그 죽음에서 도무지 헤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이처럼 안타깝게 찢찢매는 것입니다.

2. 왜 죽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학문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하여 사람이라는 고등동물에 이르렀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한 번도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일 뿐입니다.

[시49:20]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은 한 번 드린 말씀이지요. 오래 전 기원전 1000년경에 진화론적 발상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한 사실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진화론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비판할 만큼 그 방면에 대한 지식이 내게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어떻게 있게 되는지 현실적인 일에서부터 생각해 보면서, 죽음이 왜 이르러 왔는지 함께 의논해 보려고 할뿐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스스로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 말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의 존재 즉 사람의 존재는 존재하는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까? 나를 존재하게 한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없이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설령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근원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람이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존재하게 한 자와 관계없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기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자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만 생명과 생활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은 이런 관계를 확인하고 바르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것부터, 엄마와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들의 품을 오가며 자란 모든 과정이 믿음을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부모님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도 그분들로부터 받은 내 존재와 생명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생명을 거부하면 그 후로는 내가 스스로 생명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회복하여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는데 사망의 비극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에 기쁨을 살필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잠시도 존속할 수 없습니다. 생명력이 창조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연환경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폐 기능과 호흡 기능이 완전하다고 해도 대기가 오염이 심하면 병에 걸릴 수 있고,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무엇 하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의지해야 하는 근원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된 사람에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창조주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창2:7]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조주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생명줄을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께 연결한 것을 나타냅니다. 전기 제품들이 아무리 완전해도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전혀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생명이신 창조주께 생명이 연결되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 생명의 기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생명을 연결하지 않고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려면 선악과를 먹으면 됩니다. 무엇을 맛있게 먹는다는 것은 생명력이 온전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병든 사람에게는 맛있게 먹는 특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까.

호흡과 음식 이것은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창조주께로부터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창조주와 상관없이도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존재를 영원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심판주로서의 기쁨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간단하게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루시퍼가 그렇게 하였고, 루시퍼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루시퍼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결과로 그들은 창조주께서 주신 생명을 창조주께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반납하는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창3:17~19]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2:17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한 사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창조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대로 생명으로 존재하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생명을 창출하여 살아가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창조주께서는 그렇게 해 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창조주께서 창조해 준 존재와 생명은 창조주께 돌려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돌려주면 그는 존재를 상실합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흠으로 돌아갑니다. 흠이 스스로 생명을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죄의 샅은 사망이라고 한 것이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3. 죄와 사망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죄라고 하는 것과 성질이 다릅니다. 물론 세상이 죄라고 하는 도덕적 잘못에 대하여 성경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바로 롬6:23입니다. 죄의 샅은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사망이 된 것을 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형수라는 말입니다. 사형수는 죄인이 아닙니까?

죽을병이 들었다고 말했지만, 또 성경은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8:21,22]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좃으라 하시니라.

[고전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스스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도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게 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세상의 죄의 정의와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죄의 정의는 이렇게 다릅니다. 성경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를 수밖에 없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잠깐 말했는데,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니다. 신체발부수지부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없지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왔지요. 그러면 우리 각 개인은 조상들과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증조부모님을 뵈 적이 없습니다. 그 윗대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의 함자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나는 개인적이며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나는 없지요. 그렇다면 세상 최초의 사람과 우리 각 개인은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창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맨 처음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혼시키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은 생육의 방법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생육의 법을 주지 않았으면 아무도 생산할 수 없지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책임을 진 인간의 시조 아담과 그 아내가 한 생명도 생육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자손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산 자손을 낳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낳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해야 할 아담이 그 생명과 존재를 반납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생명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창조주께서 그때 그대로 생명과 존재를 반납 받으셨으면 이 세상은 공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주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에게 일정 기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사형수가 되었지만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생존하게 한 것입니다. 그 기간에 생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육된 자손은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로 생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사망의 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태어나는 후손들은 다 사망의 씨로 태어납니다. 곧 썩어질 씨로 태어났습니다.

[벧전1: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 썩어질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이 문제는 또 다음 어느 날 연구해야 할 제목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 육체의 생명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 사형수로 태어나서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살아가는 생명을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라고 가르칩니다.

[레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이 반납하게 된 그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엡4:18]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물론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반납한 후에 사형 집행일까지 유지되는 죽어가는 생명일 뿐입니다. 그렇게 집행일을 연기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기회를 허락한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죽은 그의 후손들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생명만으로 죽음이 이를 때까지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육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6: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말은 범죄함으로 육체가 되었다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를 먹고 사망이 되었으나 그 사망이 집행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을 육체, 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78:39]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직시하며 솔직히 시인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 곧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지으면 개과천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신제가 할 수 있지요. 힘이 들겠지만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형수수를 살리지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사형수가 감옥 안에서 모범수가 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성인과 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모범수들이긴 해도 사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아담 안에서 이미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요, 죽어가는 삶을 살다가 때가 되어 사형을 당한 것이지요. 이렇게 인류의 조상 아담 안에서 사형수가 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 이 사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사망으로 있다가 사형집행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쪼록 애청자들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확실하게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진리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요일5:11,12]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꼭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닌가? 어떻게 그를 믿으면 사망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인가?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태를 똑바로 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사형수가 된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이 사형집행을 당해야 할 사람들을 사형을 면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임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된 경험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고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설교자는 760-329-3846이나, 626-590-5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